

▶ 가족·아동

중학생의 피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이 지 흔*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

김 진 희 (경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피공격성을 측정하고, 피공격성의 일반적 경향과 피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피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크게 정서심리·사회적 변인(자기통제성, 분노표현, 사회적 기술, 사회적 지지)과 학교생활 변인(교사와 환경, 취미와 특기, 학업, 교우)으로 가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지역 5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9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공격성 점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해 본 결과, 피공격성 위험집단은 사례수가 241명이고, 피공격성 안전집단의 사례수는 729명으로 나타났다. 피공격성 위험집단에서는 직접적 피공격성과 간접적 피공격성 점수가 모두 높았으며 피공격성 위험집단에 속한 사례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형태는 피공격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성별에서만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공격성 위험집단의 피해 경험 정도는 '별명 지어 부르며 놀린다'와 같은 직접적 피공격성 점수가 '나에 대한 나쁜 소문 이야기한다'와 같은 간접적 피공격성 점수보다 높았다.

셋째, 피공격성 위험집단과 안전집단의 관련 변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통제성에서는 피공격성 위험집단이 안전집단보다 충동성, 단순과제선호, 자기중심성, 화내는 기질 항목에서 점수가 높았다. 분노표현에서는 피공격성 위험집단이 안전집단에 비해 분노를 표현할 때 표출과 통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은 피공격성 위험집단에 비해 안전집단이 협동성, 공감성, 주장성의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에서도 피공격성 안전집단이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높았다. 학교생활 변인에서는 학업성취능력과 교우관계 점수가 낮을수록 또래공격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

넷째, 정서심리·사회적 변인과 학교생활 변인이 피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자기통제성은 피공격성을 10% 설명하고, 분노표현을 함께 투입하면 설명력이 13%로 증가한다. 사회적 기술을 추가 투입하면 피공격성을 20%로 설명하고,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모든 정서심리·사회적 변인을 투입하면 피공격성을 21%로 설명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성 피해집단이 갖고 있는 개인적 부적응의 문제를 밝혀내고, 또래로부터의 공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피해청소년을 부모와 학교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보호하고 피공격성의 문제를 나타내는 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성장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